



金井議政

제2016-4호

2016년 4월 1일(목)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예정

- 기간 : 2016.4.20. ~ 4.26. ▶ 7일간
- 장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
- 참석 : 의원전원
- 안건 : 일반안건 등

의정 일지

일 시	내 용	비 고
3/6(일) 10:00	제10회 금정구축구연합회장배 족구 대회	의원
3/7(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3/8(화) 10:30	3월 의원정례간담회	의원
3/8(화) 11:00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의장
3/10(목) 18:00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의장
3/11(금) 11:00	부곡3동 새마을부녀회 무료급식	의장
3/14(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3/17(목) 11:00	금정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	의장
3/17(목) 15:00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정구지부 정기 총회	의장
3/17(목) 17:00	금정구지부 출범식 및 2016년 정기 총회	의원
3/19(토) 20:00	2016 Earth Hour (서동에 별을 채우다) 행사	의장
3/21(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3/21(월) 11:30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전달 및 간담회	의장
3/23(수) 12:00	금정구기관장협의회 3월 정례간담회	의장
3/25(금) 10:30	금정구청 어린이집 의회체험교실	의장
3/27(일) 08:30	제19회 금정구연합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회식	의장
3/28(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3/28(월) 11:30	보훈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의원
3/31(목) 12:00	금정구의회 무료급식봉사	의원

주요 의정 활동

3월 의원정례간담회 개최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3월 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신청현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0개부서 40개의 발굴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과 예산 확보를 위한 당부가 이어졌으며, 이어서 의원 자체토의를 통해 금정문화재단 임원 추천 등을 논의 결정하였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전달 및 간담회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3월 21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의장 및 결산검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검사위원은 정종민 의원, 최을웅 공인회계사, 조기제 세무사 및 정진홍 전직 공무원 등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홍완표 의장은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 해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 2016년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실시

▷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최봉환)에서는 지난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이번 국외연수는 글로벌 시대에 지방의회 의원의 열린 생각과 다양한 안목을 배양하여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향후 의정활동 정책에 반영하고자 의장을 비롯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6명이 참여하였다. 주제별 연수내용으로는 교육시설분야, 공연문화시설분야, 도시관광진흥 분야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 공무국외연수후기

※ 연수의원 : 의장 홍완표, 주민도시위원장 최봉환, 김성수의원, 박인영의원, 김호숙의원, 조준영의원, 정종민의원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도서관에서 금정도서관을 되돌아보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립 도서관은 호주로 이민 온 소수 다문화인을 위한 자료와 1803년 3월 5일 발행된 호주 최초의 신문인 Sydey Gazette & NSW Advertiser와 호주 최초의 인쇄물인 NSW General Standing Orders도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호주 국민들이 도서관을 사랑하듯 도서관도 호주 국민들을 사랑하는 따뜻함을 느꼈다.

○ 이와 같이, 우리 금정도서관도 금정구의 역사에 대한 기록도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으로 도서관 자체에 기록물 보존실 마련으로 각종 자료수집 및 보존을 하여 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 및 보존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우리나라와 호주인들의 사고와 문화의 차이가 나뉘어 도서관의 운영 목표 또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우리나라 도서관 대부분은 도서 대출과 문화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심인 반면, 그들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전시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운영된다는 것이다.

○ 여성친화도시,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금정구에서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젓먹이 아이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노인자원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양육에 지친 여성과 모든 부모들을 위한 독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양서의 양과 더불어 독서 문화 장려를 위해 만들어야 할 전제조건일 것이다.

○ 2014년도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도서관은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 “지역공동체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금정도서관도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성을 높이고, 주민이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정도서관은 금정구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 생활 속 독서를 진흥한다는 점에서 비중을 더 두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및 해버브릿지 야경투어에서 느낀 것들

○ 이번 국외연수의 일정은 정해진 코스를 밟았고, 나름대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만족한 시간들이었다. 무엇보다 처음의 뉴질랜드 북섬의 평화로움과 한적함에 부러움을 맘껏 누렸으나,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아득한 날들로만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다.

○ 바로, 전체 일정 중 마지막 전일에 하루의 마무리 및 여행사 가이드의 임무 종료와 함께 호텔 투숙을 위해 우리 팀원들은 버스에서 내렸다. 하지만, 뭔가 아쉬워 내일 있을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관람일정에도 불구하고 팀원 모두가 저녁식사 후 투숙 호텔에서 1시간 거리의 호주 시내인 시드니까지의 전철을 이용해 가보기로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출발했다.

○ 전철 티켓팅 후 환승과 함께 1시간정도 소요시간 경과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 시내에 도착하였고, 바로 경이로운 오페라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지고 인근 하버 브리지와 높은 빌딩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환호와 함께 기쁨의 순간을 실감했다. 북적거리는 연안 곳곳의 카페와 레스토랑에는 제법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그날이 주중 쇼핑데이 목요일이라 더욱 혼잡스러웠다. 우리 팀원들도 오페라하우스와 크루즈가 잘 보이는 카페에 자리를 잡았고, 여러 가지 맛의 시원한 음료로 서로간의 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한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시드니를 세계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의 돛 모양을 되살린 조가비 모양의 지붕이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는 오페라하우스는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유명하다. 국제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뚝손이 설계한 것이라고 한다. 1973년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굴뚝질을 까다가 영감을 얻어서 건물의 형태를 구상했다고 한다. 3개의 조가비 모양의 광대한 플랫폼이 세워져 있고, 보행로 기능을 하는 테라스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건축형태와 구조적 매력이 우수하여 이 후 건축을 하는 건물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하버브리지 남동쪽에 위치하며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서 여러 극장과 연주회장, 녹음실, 전시장, 음악당, 도서관 등을 두루 갖춘 복합건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하버 브릿지 너머로 보이는 절경의 시드니 하버를 배경으로 장엄한 세계적 오페라를 체험할 수 있다.

○ 시드니 하버 브리지는 시드니 도심에 위치한 철제 아치교로,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아치교이다. 시드니 중심상업지구와 북쪽해변 사이의 시드니 항을 가로질러 철도, 차량,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담당하는 주 교량이며, 인접해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시드니와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 실제로 보았을 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야경 경관은 굉장히 멋졌다. 우리 부산의 해운대 야경과 광안대교 야경이 어슴푸레 떠올랐다. 당일 전철 왕복 티켓팅 이어서 우리는 시간에 맞춰

서둘러 다시 전철을 탔다. 여행의 참맛은 이렇게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과 모두다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숙소로 돌아와 뿌듯한 하루를 마무리 했다.

○ 마지막 날, 우리는 맑은 햇살아래 조금은 더운 듯한 날씨에 어젯밤에 살짝 다녀간 오페라하우스에 다시금 들렀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내부 광경 견학과 설명까지 듣고 일대를 한 바퀴 돌아보고, 크루즈에서는 출렁거리는 약간의 파도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하버 브리지 일대 전경을 보는 동안, 문득 미래의 우리 도시에서의 멋진 야경도 그려보면서 전체 일정을 마쳤다. 마지막 전일 밤에 보았던 신비의 야경이 너무 멋졌다는 게 느껴졌다. 이미 가슴속에 진하게 남겨져 있어 우리의 금정구에서도 크루즈 대신 전망대(조망대) 신설 등으로 언젠가 볼 수 있을 멋진 야경을 기대해 본다.

로토루아 아트 빌리지, 지역 문화예술의 중추 역할을 하다

○ 여행 4일차, 로토루아 시내 관광 공식일정 이후에 로토루아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 시내로 가는 길에 이상하고 신기하게 생긴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이 나무에는 천으로 감싼 부분도 있고, 조형물도 달려 있고, 거미줄 모양의 끈도 설치되어 있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성황당 옆에 있는 나무 같기도 했다.

○ 나무 옆에 있는 건물을 보고 나서 이 나무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건물은 "The Arts Village", 즉 아트 빌리지 건물이었다. 동료 의원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 아트 빌리지는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인 것을 알았다.

○ 아트 빌리지 구글 검색을 한 의원이 운영시간은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09:00~16:30까지, 토요일은 10:00~14:00까지 운영되고, 일요일은 휴관이라고 했고, 특히 “200 SHOW”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 프로그램은 독특하고 신선한 지역 예술가를 소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역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시설을 지역예술가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200 SHOW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200x200mm 이하로, 3D 작품인 경우 200x200x200mm 이하로 제한을 하여, 모든 작품은 가로, 세로, 높이를 200mm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작가 당 세 작품 이하만 전시할 수 있고, 비용도 200NZD이하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200NZD이면 우리 돈으로 16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전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로토루아 아트 빌리지를 보는 순간 우리 구의 서동 예술창작공간이 생각이 났다. 서동예술창작공간도 운영이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10:00~ 18:00까지 운영되고,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갤러리 운영, 각종 기획행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지 않을 것 같았던 뉴질랜드에서 의외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도 국외 공무연수의 작은 기쁨인 것 같다.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금정구에 있는 ‘서동예술창작공간’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를 것이다. 우리 또한 로토루아에 있는 ‘아트 빌리지’가 유명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연수를 갔고,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지역예술가를 위한 공간은 세계 어느 곳이든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질랜드 북섬, 호주의 공원 녹지공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우다

○ 뉴질랜드 북섬의 오클랜드와 로토루아, 호주 시드니를 돌아보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은 더없이 넓은 초원과 곳곳의 대공원이다.

○ 자연과 함께하는 선진 청정 도시임을 새삼 느꼈고, 선진 공원녹지에 대한 몸소 체험은 한마디로 자연과 함께 하는 행복 그 자체였다.

○ 실제, 국외 임에도 우리나라 한 가운데 서있는 것 같았고, 숨 막힘 없이 뽕 뚫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동행한 분들과의 좋은 분위기도 더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구정과 의정에 접목하고 싶은 부분은 향후 막대한 예산과 많은 노력이 들지라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차츰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더불어

녹지공간을 도심지에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진하게 퍼져오고 있다.

○ 따라서, 회동수원지 활용방안과 금정마운틴 활용방안, 그리고 금정문화회관과 만남의 광장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리면서, 하루아침이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금정구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우뚝 서고 그 명성을 후대에 널리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또한, 선진 뉴질랜드 북섬과 호주 시드니의 자연친화적 관광 상품 개발 사례 견학 등 글로벌 시대에 국제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넓고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풍요롭고 여유로운 곳인 듯하였다. 부족한 영토와 자연자원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풍족한 복지혜택과 넉넉한 일자리와 긴 여유시간 등이 마냥 부럽게만 보였다. 그러나 이면에는 엄격한 자연보호 정책과 인격보호 등을 위한 수많은 벌금, 벌칙들로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실천한 결실임을 알 수 있었다.

○ 선진국가의 관광자원 등을 견학하고, 우리 구정의 실태와 비교해 봄으로써 더 넓은 견문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100년을 내다보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